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29



▶ 30회 예고
베디샤데비는 하녀들을 데리고 오후 내내 웃자인 전통음식인 달과 바플라를 만든다. 아쇼까 식탁에 웃자인 전통음식을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쇼까가 그녀의 아버지 베디샤데바에게 호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다.

아쇼까, 웃자인 반란군을 진압

웃자인 공격을 앞두고 아쇼까는 참모들과 함께 작전회의를 했다. 참모들이란 진압군의 각 부대장들이었다. 행군 중에 베디샤에서 가네샤신 축제를 만나 지연된 것 말고는 특별한 차질은 없었다. 임시군막 안쪽에 앉아 있던 아쇼까는 선봉대장에게 먼저 보고를 받았다.

"정찰조를 웃자인 성 안팎으로 보내 수시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웃자인 경비부대 부대장이 성 밖의 군사를 안으로 미리 보내 진압군이 공격할 때 성문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아쇼까가 공격전술을 정해서 명했다.

"코끼리부대가 첫 공격을 하면 반란군들이 혼비백산할 것이오. 두 번째 공격은 기마부대가 번개처럼 달려가 반란군이 저항하지 못하게 소탕하시오. 마지막으로 보병이 들어가 샅샅이 수색해 반란군 수괴와 숨은 반란군들을 생포하시오."

아쇼까는 군수부대 부대장에게 확인했다.

"코끼리와 말 먹이는 문제가 없소?"

"사실 코끼리나 말들이 이틀 동안 풀과 물을 충분히 먹지 못했습니다. 기동성이 떨어져 있으니 저는 지금 웃자인을 공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것이오?"

"웃자인에 도착하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행군이 우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풀과 물을 먹지 못한 전투코끼리와 군마들의 사기는 극도로 떨어져 있었다. 갈증이 난 전투코끼리들이 물을 찾아서 코를 이리저리 휘두르거나 상아로 땅을 파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해댔다. 군마들도 마찬가지였다. 날카롭게 괴성을 지르며 헛발질을 했다. 아쇼까는 참모를 질책하지 않고 공격을 지연시켰다.

"사기가 떨어진 코끼리와 군마를 돌진시키는 것은 무모한 일이오. 그러니 코끼리와 군마에게 충분한 풀과 물을 먹이시오."

아쇼까가 공격을 하루 늦추는 이유는 코끼리가 풀이든 물이든 엄청나게 먹어치운다는 사실을 보아서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전투코끼리 한 마리가 하루에 먹는 풀의 양은 세 수레, 마시는 물은 커다란 토기항아리 열 동이쯤이었다. 그러니 전투코끼리는 눈을 뜨고 움직이는 시간 내내 입을 우물거리고 있는 셈이었다. 군마가 먹는 풀과 물은 전투코끼리에 비해 30배 정도 작았지만 이도 역시 적은 양은 아니었다. 전투코끼리가 집채만큼 많이 먹고 마시기 때문이었다. 선봉대장이 아쇼까의 명을 전달했다.

"군사는 성 밖의 웃자인 경계군사처럼 위장하라."

"코끼리와 군마들은 일몰 후에 강변으로 이동시켜라."

진압군은 공격을 하루 늦추면서 시프라강 강변으로 후퇴했다. 시프라강은 웃자인을 관통하여 강가강에 합류하는 강이었다. 진압군 군사들이 웃자인 반란군에게 노출돼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불가피한 조치였다. 어두운 강변에 도착한 전투코끼리와 군마들은 시프라강 강물을 다 빨아들일 듯 정신없이 마시곤 했다. 배가 불룩해진 뒤에야 강변으로 나와 어린 갈대와 잡풀들을 면도하듯 아삭아삭 먹어치웠다.

밤중에 웃자인 경비부대 부대장이 정찰조 조장과 함께 아쇼까의 임시군막을 찾아왔다. 아쇼까는 불을 켜지 않고 있었다. 군막 창을 열자 달빛이 밤안개처럼 흘러들었다. 반란군 부대장이 말했다.

"정찰조 조장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성문을 열 뻔했습니다."

"공격을 늦추려고 조장을 보냈소."

"부왕이시여, 내일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오?"

"모레부터는 웃자인에 축제가 있습니다. 시프라강에 성민들이 모두 뛰어들 것입니다. 부왕님의 군사들이 공격한다면 성민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좋소. 내일 새벽에 공격할 것이니 그때 성문을 열어주시오."

부대장이 돌아간 뒤 정찰조 조장이 아쇼까에게 말했다.

"반란군 부대장이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문으로 들어갈 때 역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는 우리 편이 됐으니 믿어도 된다. 내 부하가 되어 군막을 드나들지 않느냐? 성 밖의 웃자인 경계군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는 것도 그 자의 공이다."

그래도 정찰조 조장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반란군 부대장을 감시하도록 정찰조 군사를 붙여 미행시켰다. 그러나 웃자인 반란군 부대장은 먼동이 틀 무렵 부하들을 시켜 일제히 성문을 열었다. 성문지기 군사들은 낯익은 부대장의 지시를 따랐다. 성 밖의 경계군사들이 교대하러 들어오는 줄 알고 성문을 열었다. 성 안의 성민들은 아직 잠에 빠져 있었다. 축제 준비로 밤을 새우다시피 했기 때문에 대부분 골아 떨어졌다. 성 안을 수비하는 군사들도 창을 든 채 꾸벅꾸벅 졸았다.

전투코끼리들이 괴성을 지르며 천둥치듯 성 안으로 돌진했다. 졸고 있던 반란군들이 혼비백산했다. 일부 반란군들이 활을 쏘며 저항했지만 곧바로 전투코끼리에 밟혀 죽었다. 시신들이 처참하게 나뒹굴었다. 바위가 굴러와 압사한 것처럼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배가 터져 창자가 튀어나왔다.

동서남북 네 개의 성문으로 들이닥친 전투코끼리들은 성 안의 거리를 여지없이 짓밟아버렸다. 왕궁 정문이 전투코끼리 상아에 들이받혀 부서지고 꽃들이 만개한 왕궁정원은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변했다. 붉은 꽃들이 땅바닥에 흩어져 핏자국처럼 보였다. 반란군들의 저항은 날이 밝아지자 빠르게 수그러들었다.

이번에는 기마부대가 번개처럼 들어와 성 안 진지들을 휘젓고 다녔다. 거칠기로 소문난 웃자인 성민들이었지만 두려워서 아무도 문을 열고 나오지 못했다. 아침 해가 솟구치자 아쇼까의 보병들이 조별로 들어와 왕궁부터 대신과 장수들의 사택까지 샅샅이 수색했다. 피신했던 반란군들이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했다. 왕 노릇을 하던 반란수괴는 맨 나중에 왕궁 지하실에서 붙잡혔다. 항복한 대신이 밀고해서 생포할 수 있었다. 왕궁 지하실에는 성 밖으로 나가는 비밀통로가 있었던 것이다.



반란수괴가 붙잡히자 반란군 진압작전도 끝이 났다. 선봉대장이 밧줄에 묶인 반란수괴를 넘겨받았다.

"네가 웃자인 왕궁 경비부대 대장인가?"

"웃자인 성민들이 왕으로 추대했으니 왕 대우를 하라."

옆에 있던 부대장이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뭐라고? 난폭한 살인자 놈아!"

"넌 내 부하였지. 나는 너를 반드시 웃자인 왕의 이름으로 처단할 것이다."

"아직도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군!"

부대장이 또 다시 침을 뱉으며 소리쳤다.

"살인마 같은 놈! 너의 공이라곤 웃자인의 공동묘지를 넓힌 것뿐이지."

아쇼까 진압군이 반란수괴를 시프라강 강변으로 끌고 갔다. 강변에는 어느 새 진압군 군사들이 통나무로 교수대를 만들어 세워놓고 있었다. 웃자인 성민들이 하나 둘 강변으로 모여들었다. 다른 어느 성민들보다 성격이 급하고 거친 사람들이었다. 아반띠국의 예전 왕들도 성격이 거칠기는 마찬가지였다. 특히 붓다를 초청한 적이 있는 빳조따 왕은 성격이 난폭하여 짠다빳조따로 불리기까지 했던 것이다. 반란수괴에게 보석을 상납하지 않고 늘 술만 마신다고 '멍청한 주정뱅이'라고 수모를 당했던 한 장사꾼이 소리쳤다.

"지금도 보석을 원하는가?"

"....."

그의 머리 위로는 올가미 밧줄이 대롱대롱 내려와 있었다. 선봉대장이 그의 얼굴에 검은 천을 씌우기 전이었다. 선봉대장이 검은 천을 들고 다가서자 갑자기 반란수괴가 외쳤다.

"목이 마르니 술을 한 잔 주시오!"

"그럴 줄 알고 준비했소. 술은 술이지만 섞어버린 술이오."

장사꾼 친구가 히죽히죽 웃었다. 술주정뱅이 장사꾼이 준비한 술병에는 그의 오줌이 들어 있었다. 술병을 건네자 반란수괴가 단숨에 들이켰다. 오줌을 들이킨 그의 얼굴에 희미하게 웃음기가 어렸다. 그러나 바로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장사꾼이 소리쳤다.

"섞은 술맛이 어떤가?"

그러나 선봉대장은 그의 대답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반란수괴의 얼굴에 검은 천을 씌우고 목에는 올가미 밧줄을 걸었다. 이윽고 의자에 앉아 있던 아쇼까가 한 손을 들자 순식간에 그의 몸은 허공으로 치솟았고 나무토막처럼 뻣뻣해졌다. 성민들이 반란수괴에게 야유와 조롱을 퍼부었다. 경비부대 부대장이 소리쳤다.

"웃자인 성민이여! 지금부터는 이분이 웃자인의 왕이십니다."

아쇼까는 앉아 있던 의자에서 일어나 한 손바닥을 펴면서 흔들었다. 반란수괴에게 야유와 조롱을 퍼부었던 성민들이 이번에는 박수를 치며 함성을 질렀다. 아쇼까는 두 손바닥을 앞으로 내밀면서 화답했다.

"나는 마우리아국 대왕님의 명을 받고 웃자인에 온 부왕이오.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웃자인 성민을 사랑할 것이오. 마우리아국의 법을 따른다면 신분을 따지지 않고 누구든 사랑할 것이오. 나는 성민과 군사를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 나에게 위임한 권한을 남김없이 행사할 것이오."

웃자인 성민과 군사들의 함성이 시프라강을 넘어 퍼졌다. 하루가 지나면 모두가 시프라강에 뛰어들 성민들이었다. 강물에 몸을 담그는 축제가 열리기 때문이었다. 아쇼까 진압군이 새벽 일찍이 공격해 반란군들을 소탕한 것도 내일 열리는 축제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진압군 중에는 브라흐민들이 많았다. 그들은 강물에 몸을 씻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다. 이유인즉 신들과 아수라들이 싸우다가 성스러운 강이 되어 생겨난 축제였다.

먼 옛날이었다. 브라흐마교 성자 두르바사가 길을 가던 중 코끼리를 타고 가던 신들의 왕 인드라 신과 마주쳤다. 두르바사는 존경을 표하며 목에 걸고 있던 꽃목걸이를 인드라 신에게 바쳤다. 그런데 인드라 신은 자신의 목에 걸지 않고 코끼리 코에 걸어주었다. 잠시 후 꽃목걸이는 땅에 떨어져 코끼리 발에 짓밟혀 부서졌다. 모욕감을 느낀 두르바사는 인드라 신에게 저주를 내렸다. 그러자 인드라 신은 천상, 허공, 지상, 즉 삼계를 지배하는 권위를 잃어버리면서 신들과 아수라들과의 싸움에서 불리해지고 말았다. 위기에 처한 신들은 우주의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비슈누 신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비슈누 신은 신들과 아수라들이 싸우지 않도록 맹약을 주선하고는 서로가 우유의 바다, 끄시라 사가르를 휘젓게 했다. 그러자 신비로운 것들이 떠올랐다. 그 가운데는 불사의 영약인 암리따가 담긴 항아리도 있었다. 이에 욕심을 낸 아수라들이 약속을 깨고 항아리를 차지하려고 들었다. 이때부터 치열한 싸움이 12일간 벌어졌다. 싸우는 동안 항아리에서 암리따 네 방울이 지상에 떨어졌다. 강가강, 시프라강, 고다바리강, 강가강과 야무나강과 사라스와티강이 만나는 곳에 한 방울씩 떨어져 누구라도 네 곳의 강물에 몸을 담그기만 하면 전생부터 지은 죄가 씻어지고 윤회의 굴레를 벗어났다.

아쇼까가 옆구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들면서 선봉대장에게 말했다.

"내일 해가 뜨면 가장 먼저 강물에 들어갈 것이오."

"부왕이시여,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이제 부왕님은 해와 같은 존재이십니다."

아쇼까는 아침 해가 빛을 뿌리는 순간 가장 먼저 강물에 몸을 적실 터였다. 그런 뒤 어두운 꼭두새벽부터 일출을 기다리고 있던 나체사두, 수행자, 브라흐민 제관, 성민들 순서로 시프라강에 들어가 몸을 씻을 것이었다. 〈계속〉



